

문화재단인 | 당진문화재단 3대 이명남 신임이사장

당진문화재단 민간이사장 시대 열렸다

“당진지역문화, 널리 알리는데 힘쓸것”



지난 9월 27일, 2015년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홍장 당진시장이 이임했다. 이명남 목사는 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동안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은 당진시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아왔다. 민간영역에서 이사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이사장 취임에 따라 향후 당진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9년간 지역을 지켜온 이명남 이사장의 이력은 시민사회영역에 집중돼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은 당진에서 32년간 목회활동을 했다. 또 당진민주시민회 초대회장,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지방분권운동연대 공동상임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3기 부의장 등 환경·인권·평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당진은 현재 문화 르네상스의 기회

취임 후 두 달 동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를 최근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우선 취임소감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어제 취임한거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됐네요. 이제 겨우 업무과약 정도 한 듯 싶어요.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을 때 마다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그가 바라보는 ‘당진’의 모습과 진단이 궁금했다. “당진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불모지였어요. 짧은 기간 도시가 성장 발전하며 젊은층

이 대거 유입됐죠. 이제는 문화가 발전 성장해야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 지금이 문화 르네상스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외지인과 원주민들간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더 발전할 수 있고, 문화예술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그가 이사장직을 수락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 몸담아 지역에 봉사하며 쌓인 인맥, 인간관계를 동원해 마지막으로 당진시를 위해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게 문화재단이었고, 문화재단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직을 맡았습니다.”

그가 이사장직을 맡아 두 달 동안 지켜본 재단은 밖에서 본 모습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밖에서 볼 때는 당진에도 문화재단이 있구나 정도였죠. 막상 들어와서 보니 생각이 상으로 당진시와 문화재단 소속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더군요.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 이사장이 임기 중 당진문화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대외협력’이다.

“스위스대사관 초청으로 얼마 전 주한 스위스대사관에 다녀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말하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도시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를 통해 접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내년 2월 안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좋은 관계를 맺을 생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진을 세계 속에 알리고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도시 만들기

아울러 그는 지역 시민단체 간 거버넌스를 보다 강화해 지속가능한 문화공동체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누리는 문화가 아닌 소외계층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문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좀 더 많은 문화혜택도 받고 함께 공유해 살아가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죠. 문화를 통해 하나 되고 당진 시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중소도시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이사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당진시와의 협력과 소통이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극복방안을 물었다.

▶2면으로 이어짐

글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사진 김형태 당진문화재단 이사

2기 김홍장 이사장체제, 무엇을 남겼나

각종 지표 지속증가, 소통예술행정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 3월 출범했다. 몇 달 뒤인 내년 3월이면 출범 5년째를 맞는다. 이는 시기별로 보면 1기 출범기, 2기 안착기, 3기 전환기로 나눌 수 있다.

1기(출범기)는 2014년 6월까지 1년여 기간이다. 이 시기 이철환 이사장과 문옥배 사무처장이 각각 취임했다. 당진문화재단이 당진문예의전당 운영을 도맡았다. 또 당진문화예술학교 수탁운영도 맡게 됐다. 이를 통해 당진문화재단은 당진문화예술의 싱크탱크이자 대표기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2기(안착기)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년간이다. 김홍장 이사장체제다. 김홍장 이사장 취임 6개월 만에 당진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문화도시 당진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비전도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라는 가치에 걸맞게 문예의 전당 공연향유 기회 또한 크게 확대됐다.

2016년 기준 기획공연 횟수는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고 객석점유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관객

만족도도 95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국비공모사업도 2014년 1억여 원에서 3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당진문화예술학교 단독수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전기를 마련했다.

문화재단 산하 시민오케스트라가 창단(단원 40여명)됐고, 문화동아리주간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눈에 띄는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창작의욕도 고취시켰다. 이 시대 당진작가전, 이 시대 당진문학인출판사업, 지역공연단체 지원, 연습공간 지원,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문화기획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과 7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예술행정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3기(전환기)는 이명남 민간이사장 취임으로 변곡점에 선 2018년부터다. 안착기를 거쳐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3기 당진문화재단이 어떤 성과로 당진시민에게 다가갈지 주목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 2015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

이만용 작가의 <갯벌>



>>이만용
·전국사진공모전
2010년도부터 19회 수상
·2015당진올해의사진작가
·현당진사진동우회회원

2015 당진 올해의 문학인 선정 작가의 시선

시 한편 | 심장섭

자국

집없는민달팽이
분비물을남기며길을가고있다
얇은막이끊어질듯이슬이슬천천히
미끄럽고부드럽게길을만들고
고행이흘러나온자국처럼

길은차츰차츰희미한조각들로남는다
미끌미끌한제몸을조금씩녹이고
매마른곳에서자국을남기며
촉촉했던기억을되살리며건조한곳을건디고있다



>>심장섭
2004 공무원 문학시 등단
한국문인협회충남문인협회회원
국제펜클럽 회원
당진시인협회 회원
공무원문인협회 회원
공무원문인협회충남지부장
호수시문학회전회장
한국문인협회당진지부 이사
2015당진올해의문학인 선정 (건드리지않아도 눈물이난다)
현정미우체국 재직



“지역문화예술진흥과시민예술활동지원강화”

▶1면에서이어짐

“시장이 맡았던 재단을 민간인이 맞게 되니 많은 우려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시와 중요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운영이 힘들죠. 시와 의회, 기관들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기능 수행이 가능합니다. 당진시와 여러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감을 얻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문화성장을 위해 재단역량 집중

그동안 목회자, 민주화운동 원로, 통일운동가, 인권운동가라는 별칭을 받아오다 문화재단 이사장직으로 지역문화예술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별칭중 가장 애착이 가는 영역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약자의 편에서 서

약자를 돕는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신대 문제, 일제징용문제,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신시대 억압계층 등 약자 편에서 사회전반에 아픔을 거의 함께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과 시민사회, 지역민, 관련기관과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동반성장을 위해 재단 역량을 집중하려 합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예술활동 지원을 활발히 펼쳐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집중 할 것입니다. 시민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신경을 쓰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전 이사장께 전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시장이 하던 일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초유의 일이며 여러 우려를 낳을수도 있지만 변화를 위해 필요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좋은 생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전당 옆 공원에서 사진촬영을 했다. 그가 낙엽을 딛

고 섰다. 나무의 성장을 돕고 다른 생물의 밀거름을 자처한 낙엽에서 이 신임 이사장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글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사진 김형태 당진문화재단 이사



당진문화재단 핵심사업 |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천원으로 즐기는 수준 높은 공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다양한 장르 공연 진행
하우스콘서트, 해설 있는 음악회 등으로 관객과 더 가까이

"마지막 주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천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당진문화재단 문화회원들이 최고로 꼽는 기획 공연 중 하나가 바로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이다.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장르의 무대도 매력적인데, 입장료가 천원이라니! 공연 마니아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당진문화재단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다 다양한 장

르의 공연을 선보임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공연을 개최한다.
다양한 장르 공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의 특징은 단연 '장르의 다양성'이다. 보통 '전당식 공연'이 클래식이나 대중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놓고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은 그야말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색다른 공연'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올해 기획된 공연만 놓고 봐도 공연의 다양성과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탭댄스, 바이올린 독주, 해설이 함께하는 피아노 공연, 7080 콘서트, 에콰도르 음악 그룹 콘서트, 해금 연주회, 경기도립국악단 연주회, 클래식 타악 공연, 드럼·기타·해금·탭댄스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음악밴드 공연이 그것이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을 기획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장르의 다양성"이라며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관객과 호흡하는 하우스콘서트

당진문화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공연을 대부분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하우스 콘서트란 공연자를 중심으로 이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가까운 객석에 편하게 앉아 공연을 즐기는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로 공연자와 관객이 경계가 없는 무대 위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마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당진문화재단은 4월 냉정과 열정사이, 10월 유니파이 등의 공연을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7080 레전드 '이광조' 콘서트는 300석의 관람석을 음향, 조명콘솔과 함께 무대 위에 설치해 관객들이 객석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추진하기도 했다.

관객들이 연주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세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특설무대로 진행되는 하우스콘서트 컨셉 덕분에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공연은 고정 매니아 층이 생길 정도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문화회원 박미숙 씨는 "연주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하우스콘서트 공연이어서 더 기쁨에 와 닿았다"며 "연주자들이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해설이 있는 콘서트로 관객과 소통

하우스콘서트 형식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의 경우 해설을 곁들여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기획하기도 했다. 4월에 진행된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공연에는 KBS 클래식 FM 장일

범의 가정음악' 진행을 맡고 있는 장일범 씨가 해설자로 나서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다.

지난 3월에는 윤수영 바이올린 독주회를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열고 문옥배 당진문예의전당 관장이 직접 해설자로 나서 청중과 교감할 수 있는 공연으로 꾸미기도 했다.

김선미 씨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람 후기란을 통해 "해설을 들으니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음악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연"이라고 평했다.

천원의 감동

한편 관객들은 무엇보다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의 최고 매력으로 '입장료'를 꼽는다.

여타 기획공연 입장료가 좌석등급에 따라 5만원을 웃도는 것에 비하면 사실 입장료 '천 원'은 상징적 의미이고 무료 공연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유각환 씨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람 후기란에 "처음엔 천원짜리 공연이 오죽하겠더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천원의 행복을 언제 또 누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남겼다.

문화회원 이준희 씨 역시 "집 가까이에서 천원으로는 어딜 가셔도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행운"이라며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진에서는 당진문예의전당 외에 당진시립중앙·송악·합덕도서관과 아미미술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CGV당진이 참여하고 있다.



2월 문화가 있는 날 (탭댄스 그라운드젼)



3월 문화가 있는 날 (비루투오조 바이올린)



4월 문화가 있는 날 (피아니스트 양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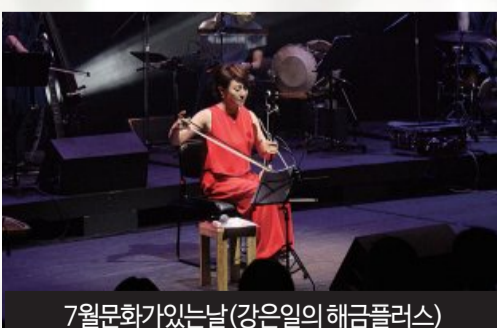
5월 문화가 있는 날 (이광조 콘서트)



6월 문화가 있는 날 (인테스 전통예술단 가우사이)



11월 문화가 있는 날 (신형원 콘서트)



7월 문화가 있는 날 (강은일의 해금플러스)



8월 문화가 있는 날 (경기도립국악단 운우풍류)



9월 문화가 있는 날 (캠발로와 함께하는 알테무지크)



10월 문화가 있는 날 (유니파이 콘서트)

기획 *it* 수다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전문인력육성사업

당진에 문화예술전문인력키운다

지역내문화기획자네트워크형성에기여
각종육성프로그램통해새로운문화창출계기마련



사진 문화인력양성프로그램

20세기 초 미국 교육학자 존 듀이는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인격체로서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는 경험으로 예술을 규정한 바 있다. 존 듀이는 지속적인 예술 경험을 통해 인간이 지적 변화를 이루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길러낼 때,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2000년 이후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면서 여러 정책과 사업에서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당진 역시, 젊은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상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와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화강좌 수강이나 문화 공연 관람을 넘어 직접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꾸준히 이 같은 지역의 문화 양상 변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당진문화재단은 예술전문인력육성사업으로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 △

문화자원봉사자 육성프로그램 △문화예술 행정연수사업 △문화예술 무대연수사업 △예술단체 경영컨설팅 등을 운영, 계획하고 있다.

인력 양성 과정 '숨은 지역문화 씨앗 찾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당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전문인력육성사업 대부분이 '지역 문화'에 중점을

계 참여해 사업 진행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과정 중에도 수시로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지역의 마을 중 문화 사업이

로 과정과 내용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다각도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진문화재단은 지속적인 활동모색을 위

매년문화기획인력양성프로그램, 문화자원봉사자육성프로그램운영 공모사업선정돼충청권농산어촌문화인력양성과정 '문화이모작' 진행

○문화이모작 사업

마을에서 직접 문화사업 기획
농산어촌 문화인력양성과정, 마을 단위 문화사업 프로젝트

마을 단위 문화사업 프로젝트인 문화이모작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당진문화재단이 2017 충청권 문화이모작 농산어촌 문화

두고 있지만 문화이모작 사업은 특히 참가자들이 마을단위 문화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기초과정부터 실습까지 참여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추진되었다. 열린 교육과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지역문화 기획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이기도 했다.

담당 컨설턴트가 사전 초기 기획부터 함

필요한 마을을 직접 선별하고 마을의 특성에 걸맞는 문화 사업을 스스로 기획해 실행해보면서 보다 실제적인 문화 기획을 경험할 수 있었다.

문화이모작에는 지역 대학생부터 이장, 협동조합 운영자 등 다양한 지역의 (예비)문화 기획자 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교육장소가 아닌 현장중심의 교육 장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집중도 있는 교육이 가능했으며 참여자 스스

로 문화재단 사업 및 지역내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이모작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생활문화진흥원과 당진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전 과정 이수자에게 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과정별 수시 맞춤형 멘토링과 참여팀별 실습비 등이 지급되었다.



사진 문화자원봉사자육성프로그램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역의문화기획자들이 모여 공부하는 시간 지역내문화기획자 네트워크형성에도움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은 당진문화재단의 예술전문인력육성 사업 중 대표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매년 총 5회 운영되었다. 지역의 예비문화기획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문화예술 종사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계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박2일간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초창기 강의와 참여자 교류시간이 주를 이뤘던 것에 현장 견학 등이 접목되면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 3년차를 맞았던 지난 2015년에는 기획 홍보 마케팅 전략과 효과적인 제작 방법 및 공연 에티켓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1박2일 덕산 리솜리조트에 머무르며 세계 예술의 흐름, 공연장 안전관리 및 에티켓, 홍보마케팅 전략 및 언론과의 소통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기존의 답화 및 토론 위주의 네트워크 교류가 아닌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움직이며 함께 하는 공동 작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친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지역에

서 문화예술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이 부재해 갈증을 느꼈다”며 “향후 차수로 일정기간 교육을 진행하는 심화과정 양성프로그램의 운영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뤄졌다.

기존의 강의와 더불어 선진지 견학을 추가함으로써 이론과 실전이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기획자 및 예비문화기획자 37명은 대전에 여장을 풀고 대전 문화관과 이응노 미술관 등을 견학하고 대전 원도심을 둘러보았

다. 2016년에는 특히 당진 지역 문화사업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원도심을 주제로 지역 원도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50여 명이 참가해 인천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과 배다리 문화마을, 인천아트플랫폼, 차이나타운, 한국이민사 박물관을 견학했다. 견학 후 진행된 강의 주제는 ‘원도심 문화·도시 재생에 관한

사례 및 활성화 방안’으로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예년에 비해 지역 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로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이 주를 이뤘으며 견학지였던 인천아트플랫폼과 같은 공간을 당진에도 마련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토론도 이뤄졌다.

○문화자원봉사자육성프로그램

문화자원봉사자육성해 하우스 어서로 채용카드 일반 시민 대상, 인력 재창출 및 취업 기회 제공

다양한 계층의 문화인력, 교육과 현장실습 제공해 육성 프로그램 이수자와 지속적인 교류로 네트워크 형성 예술단체 경영컨설팅 등 전문 인재 양성 사업도 계획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자원봉사자 육성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연장을 보조하는 문화자원봉사 안내원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공연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특히 당진시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사업’과 연계해 문화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있다.

객서비스 응대 요령’ 등에 관한 이론 교육을 이수했다. 12월 7일 송년공연 <거미콘서트>에서는 현장 실무교육을 받았다.

당진문화재단은 우수 수료자에 한해 당진문화재단의전당 하우스 어서에 채용해 심사를 진행,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단원 채용사업으로 문화예술 실무 전문가를 육성해 실무능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향후 계획된 사업 안내

당진문화재단은 위 3개 사업 외에도 문화예술행정연수사업, 문화예술 무대연수사업, 예술단체 경영컨설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 가중되는 실업난 타개에 일조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 프로젝트인 문화예술 행정연수 사업은 연수단원을 채용해 문화예술기관에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직무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실무능력을 키워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문화예술 무대연수사업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분야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단원 채용사업으로 문화예술 실무 전문가를 육성해 실무능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술단체 경영컨설팅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동아리 또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공유하고 지원전략을 도움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문화이모작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문화기획인력양성프로그램
이현정 참가자

문화이모작 사업
이해현 참가자



“지역문화기획자들 교류에봇물튼계기”

“건축과강의가어우러져알찬연수”

이현정(당진평생문화센터장) 씨는 매년 문화기획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씨는 “문화가들을 만나 소통하고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기 시작했다”며 “몇 해 연이어 함께 했던 참가자들이 소모임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적 네트워크를 얻고 싶어 참여했는데 확실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문화기획자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해마다 인맥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요.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문화는 특히나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이현정 씨는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 “예년에 비해 더욱 알차게 진행되어 좋았다”며 “인천차이나타운을 견학하면서 당진에도 수공예와 관련해 응용해볼 수 있는 문화상품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문화기획사업 통해실전경험”

“대호지면두산리경로당에서 ‘살롱두산리’ 운영”

이해현(영어학원 운영) 씨는 문화와 관련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면서 문화이모작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문화와 관련한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 주된 목표였다. 그런 점에서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과 문화를 기획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컨설팅트를 해주시는 전문가들이 함께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기만 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물론 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게 문화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전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고 유익했어요.”

이해현 씨는 팀원들과 함께 대호지면 두산리에서 ‘살롱 두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두산리는 집성촌이다보니 가부장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고, 대부분의 마을 일을 남자 어르신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녀자들도 마을 일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살롱 두산리’를 기획하게 되었죠.”

이해현 씨는 팀원들과 함께 할아버지들이 주로 이용했던 경로당에서 할머니들도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씨는 “문화재단이 들어선 뒤 일반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문화이모작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분들을 만나게 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인 칼럼

당진의연극, 꽃을 피우다



류희만
(사)한국연극협회당진지회장
극단당진대표

지역 어디를 다녀도 작은 소도시에서 지역극단들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다. 배우가 없고, 제작비도 부족하고, 관객도 없다. 언제나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렇다고 지역에 젊고 훌륭한 무대예술과 출신의 인적자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공을 살려 배우로 성장할 기회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고향을 떠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도시 혹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인재들을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것 또한 기업을 유지하고, 공헌이 들어오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 도시에 갈 이유와 가치가 없으면 아무리 도로사정이 좋고 가까워도 그 도시를 찾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타 도시로 쏠리는 역효과 현상이 나타날 뿐이다.

우리는 가끔, 작고한 훌륭한 예술인이 서로 자기 지역출신이라고 경쟁하듯 기념관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고 축제를 벌이며 심지어는 고증을 통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광경을 본다.

지자체 문화적 브랜드를 알리고 역사적 인물을 기리며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직간접

적 시너지를 꾀한다는 취지지만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들만의 깡깡 퍼포먼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필자는 8일간의 '2017 제2회 당진전국연극제' 막을 내리며 그 답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쉽게 찾아질 해답도 아니다. 그렇다고 선부르게 어설플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

대항로는 서울이 만들어낸 극거리이고 '거창연극제'는 거창이 만들어 낸 거창의 문화가 되었다.

삼대를 내려오는 허름한 국밥집 옆에 멋진 인테리어를 한 대형국밥집이 들어와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자본은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있지만 가치(value)와 정신은 다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그들의 정서와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런 가치(value)와 정신 바탕이 되어야 힘이 있고 그 가치를 옹호하는 마니아가 생겨날 것이다.

극단당진을 창단하면서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목소리가 사회에 대한

저항이든, 때로는 막걸리 한잔에 빠있는 푸념도 좋다. 시장골목의 역세게 살아온 아주머니의 치열함도, 어느 시골마을 꽃다방 로맨스도 좋다.

지금 당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것'이다.

그들의 삶을 연극으로 노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울고, 웃으며 소통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아닌가 싶다.

'극단당진' 8년이 지난 오늘 비록 미약하지만 먼 훗날 지역연극의 꽃을 피우는 토양이 되길 바란다.

예술가의장소

문화가 산책



임재광
미술평론가,공주대학교수

만 도시의 이미지는 강산이 두 번 변했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호텔 체크인 시간과 비행기 탑승 시간의 간격이 너무 커 매번 상황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근교 당일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11시에 호텔 픽업을 와서 근교 여행을 한 뒤에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가 있었다. 베르사이유궁이나 아울렛매장을 다녀오는 전형적인 센딩서비스가 있었지만 최근에 인기 있는 장소는 고흐가 말년에 묵었던 마을이나 밀레가 그림 그리던 곳,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 등 미술가와 인연이 있는 곳이었다.

마네의 지베르니 정원은 동절기 휴관에 들어갔기에 갈 수 없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고흐 마을 즉 오베르 쉬르 우와즈(Auvers sur oise)라는 곳을 가기로 하였다. 파리 북쪽으

로 30키로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1890년 5~7월 사이 고흐가 세상을 뜨기 전 두 달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약 70점의 그림을 그렸다.

마침 나를 안내한 사람은 충북 청주 출신의 현직 화가였다. 파리에서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어려워진 여건의 타개책으로 라이선스를 따서 정식으로 여행안내를 시작하였다 한다. 같은 분야의 종사자로서 공통의 관심사가 많아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동행이 되었다.

속칭 고흐마을은 평범한 프랑스의 시골마을이다. 특별한 볼거리나 명소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 풍광이 다른 곳에 비해 뛰어난 것도 아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고흐와의 인연 덕분이다. 고흐는 이곳에서 불과 두 달을 머물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고흐마을이 된 것은 예술가의 장소와 연관

된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주효한 탓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마을을 지나다 싹쓸이에 매몰로 나온 고흐가 묵었던 여관을 사들여 가치 있는 장소로 바꾼 현재의 주인 장선 이라는 사람과 그와 뜻을 같이하는 고흐를 사랑하는 모임의 동호인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베르의 곳곳에는 고흐와 관련된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고흐가 묵었던 여관, 고흐의 무덤, 권총으로 자살했던 곳을 비롯하여 고흐가 이젤을 바치고 그림을 그렸던 장소에 그림과 설명이 적힌 표지판들이 있고 관련된 지도가 있다. 관광객들은 이 지도를 따라 성지 순례하듯 그림속의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예술가와 의미 있는 장소는 무형의 관광자원이다. 불행했던 한 예술가의 짧은 발자취가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우리나라도 최근 예술가의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의미 있는 장소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군인 학자와 관련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문화예술가와 관련된 장소가 인기 있는 장소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인물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근의 예산과 흥성에서 고암 이승노의 생가를 놓고 서로 자기 쪽이라고 법정 소송까지 벌인 예도 있다. 그만큼 이름 남긴 예술가는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한다.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밖에 없는 생가지로서의 장소보다는 예술의 탄생배경이 되어 훗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예술가를 생전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창작을 지원하면 되는 일이다.

당진은 다행이 문화재단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예술가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예술가들이 당진에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장단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훗날 예술가의 빛나는 장소로서 순례자들을 모을 수 있는 자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진문화진흥기금 지원단체 문화·예술행사 일정



사업일자	시간	사업명	단체명	장소
12월1일	19:00	당진시교향악단제11회정기연주회	당진시교향악단	당진문예의전당대공연장
12월1일~7일		당진인물작가회정기전	당진인물작가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12월2일	16:00 ~ 17:30	당진시예술소년소녀합창단 정기음악회	당진시예술소년소녀합창단	당진문예의전당대공연장
12월7일		제12회찾아가는 청소년 열린음악회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	당진고등학교 행복나눔관 3층
12월7일~13일		구상작가전	당진구상작가회	다원갤러리
12월8일		충청 웃다리농악계승발전	해오름농악보존회	줄다리기박물관
12월8일~14일		2017미소연현대도예가회전	미소연현대도예가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12월15일~21일		열번째먹그림사랑전	먹그림사랑회	당진문예의전당제1전시실
12월16일	16:00	당진소년소녀합창단제11회정기연주회	당진소년소녀합창단	당진문예의전당대공연장
12월19일	19:00 ~ 21:00	제31회온누리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온누리합창단	당진문예의전당대공연장
12월26일~28일		제34회회원사진전시회	당진사진동우회	당진문예의전당제1전시실

*일정 및 장소는 주최 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 **人** 열전 - 조각가 배효남



‘참을수없는 존재의 가벼움’

문명과 자연,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당진 평화의 소녀상, 심훈기념관 심훈 동상 조각

작년 봄, 당진터미널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다. 하얀 제막이 벗겨졌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소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자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는 소녀의 모습은 곧 날아오를 듯 날개를 편 새처럼 자유롭고 희망차 보였다. 배효남 작가의 작품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랜만에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늦은 가을 오후, 작가의 고향이자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이 태어난 고대면 성산리에서 작가 배효남을 만났다.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소녀상들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예술작품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인 선동 구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소녀상의 이미지가 규격되어 비석 세우듯 전국에 세워지면 시간이 지나 상처 치유가 이뤄질 때, 어찌될까 싶더라고요. 좀 더 달라야 한다 생각했죠.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것이, 더 평화의 상징 담겼다고 생각했어요. 소녀가 할머니가 된 현실은 그림자로, 변하지 않은 영혼은 나비로 표현했구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이야기다. 다르다는 건, 결국 그가 작가이기 때문이었다.

자연에서 나온 자연 예술가
작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을까. 돌아온 답변은 이렇다.

“제가 한글을 중학생이 돼서야 완벽히 알았어요. 공부할 땐 틀렸다고 못 한다고 매 맞기가 일주였어요. 그런데 미술시간만 되면 칭찬을 받았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그리고 보면 타고난 것도 분명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멋쩍게 웃는

배효남 작가는 고대면 성산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석문방조제가 들어서기 전, 마을 앞까지 염전이 펼쳐져 있었다. 걸어서 10분이면 바다에 닿았다. 시골에서 그는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곤 했다. 돌이켜보니 그것이 그의 첫 작품인 셈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환경은 초창기 작품에 투영되었다. <성연의 세월>, <정적>

에서 보여지는 벗짚방석 등이 그것이다. 인간, 자연, 생명은 그 후로도 줄곧 그가 작품의 주제로 삼아온 것들이다.

자연과 문명, 인간에 대한 성찰
배효남 작가는 대학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문명과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의 연장선에서 작업을 해왔다. <선택>, <선택과 조화>, <양자선택>에서 최



근 신작 <우연한 여행자>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연과 문명의 대립구도에서 바람직한 조화와 상생의 방법, 그리고 그의 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김종길 미술평론가는 “배효남은 상처 받은 인간의 내면을 자연과 문명의 상징물로 채운 작품을 선보여 왔다. 내면의 상처란 그것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의 ‘맞섬’임을 웅변했던 것이다. 그의 몸에 내장된 자연은 어떠한 이기의 흔적도 없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며(종락) 반면, 온갖 부품들로 가득 찬 다른 인체는 근대 이후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의 껍질이고, 본질이다. 그것들의 내면은 철저히 구조화되어 있는 시스템의 흔적이며 신체 없는 기관의 세포들이다”고 평했다.

한편 이러한 주제는 육중하고, 비장하며 남성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오상일 조각가(미술학박사)는 그의 작품에 대한 형식적 특징으로 ‘1. 고전 조각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것, 2. 표현된 인체에 대하여 추상 형태의 구조체를 병렬시킴으로써 인간이 처해 있는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 3. 거대한 스케일과 육중한 재료가 주는 무게와 양감으로 비장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사실은 내 이야기, 행복해지고 싶다”
시대의 문명과 이기,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다룬 작품들. 찬찬히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속에 인간 ‘배효남’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가 살았던 시대, 살았던 지역, 처해 있는 상황들이 모두 작가 개인사와 맞물리는 거니까요. 그런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 후대에도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는 가장 최근작인 <우연한 여행자>

도 ‘사실은 내 이야기’라며 말을 이었다.

“차에 혼자 있었어요. 전날 마신 술 때문인 줄만 알았죠. 식은 땀이 흐르고 숨이 차서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수업을 해야 하니 무조건 앉아 있을 수만 없었어요. 어떻게 강의실로 올라갔는지 수업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후에 병원에 가서 그날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3박4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느꼈던 삶에 대한 성찰의 결과가 <우연한 여행자>예요.”

그는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로 “뜻하지 않았던 상황, 가족사, 어둡고 힘든 것도 내 삶”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내가 진짜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겠나”며 “행복해지고 싶다”고도 말했다. ‘행복’이란 단어가 의미 그대로 그토록 진실 되게 들렸던 적이 언제였나, 나도 모르게 숨을 크게 뿔었다.

그의 오랜 산고 끝이 기대 되는 이유
꾸준한 작품 활동을 선보여 왔던 그가 2015년 제9회 개인전 이후 작품 활동에 다시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다.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그는 자신의 오래된 작업 주제이기도 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듯 했다.

“지금은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예전엔 교사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작업을 쉬지 않고 했죠. 그러다 <우연한 여행자> 작업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그 결론이 작품이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그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좀 더 냉정해져야죠.”

그의 숨 고르기가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즈음, 다시 땀 흘리며 작업에 몰두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오랜 산고 끝에 나올 그의 작품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글: 사진우현선

만나고싶습니다 | 문화회원 이준희씨 가족

“가족과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공연관람”



“문화가있는날, 저렴한가격에 다양한장르대만족” “어린 자녀와 함께 볼수있는 기획공연 늘어났으면”

참 바쁜 시대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의 삶이 바쁘다. 초등학교만 되어도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일조차 쉽지 않다. 한데 여기 수시로 공연을 함께 즐기고 나누는 가족이 있다. 당진문화재단 문화회원 이준희씨 가족 이야기다.
“저도 당진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어느 가장들하고 비슷했어요. 일도 바빴지만 그보다 귀찮기도 하고 마음먹은 만큼 쉽게 공연을 보러 다녀지지가 않

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저희 집은 제가 공연일정체크부터 표 예매까지 다하거든요. 전 혼자 공연을 보러 다니지는 않아요.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었을까.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첫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 생활이 바뀌

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실했죠. 더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고, 아이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회사가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들었어요. 주말이면 여행도 더 많이 다니려고 노력해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게 됐다고 해야겠죠.”
당진으로 이사를 온 뒤에는 이씨의 이런 삶이 더 탄력을 받았다. 바로 당진문화재단과 당진문화재단 덕분이다.

“집과 가까워서 더 자주 찾게 된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비용이 정말 저렴하죠. 라이브카페만 가도 1~2만원은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예의전당 공연은 장르도 다양하고 공연 수준도 높는데 정말 저렴해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1천원이니,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요.”
이 씨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무대와 객석이 가까워서 온 몸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며 “특히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다양한 공연을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빠의 이런 마음과 달리 처음에 두 딸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대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니 아직 초

등학교인 아이들의 시큰둥한 반응은 어찌면 당연하다 싶다. 그런데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후, 아이들의 생각도 달라졌다.
“처음엔 지루할 것 같아서 오기 싫었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고 좋았어요.”(이윤서, 13)
“연극 ‘라이어’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연극 보러 갈 때는 기대되고 신나요.”(이혜윤, 10)
아내 권미영 씨는 “남편의 권유로 무작정 따라갔었는데 공연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좋았다”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씨 역시 “아이들에게 공연장에 가는 습관이나 음악적 감성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함께 다니고 있지만 성인 위주의 공연이 많다보니 사실 아이들이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공연 도중에 잠이 드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아이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획공연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 공연된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을 가장 인상 깊은 공연으로 꼽았다. “클래식에 문외한이었는데 당진문화재단 공연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클래식을 즐길 수 있게 됐고 외국의 이름 있는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통해 클래식의 매력을 한껏 더 알게 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같은 기간 중 예매율이 세 번째로 높았던 당진문화재단 문화회원이다.

만나고싶습니다 | 신성철(밴드 리턴즈 보컬, 경희신성철한의원장)

“문화예술 전문인력 늘려야 시민들이 더 행복”

다양한장르의공연, 인근지역중 ‘당진’이 독보적 생활문화예술제, 지역문화공연 확대에 방아쇠당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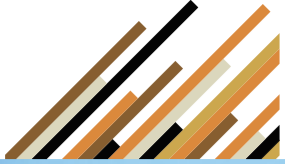
노래하는 한의사, 신성철 씨는 대학시절에도 노래패 활동을 했을 만큼 음악을 가까이 하는 의학도였다.
노래하는 것이 좋아 당진 고향에 한의원을 개업하고도 밴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다수 문화동아리가 그렇지만 밴드에선 더욱이 무대가 중요하다보니, 자연스레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시민보다 당진문화재단의 여러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잦아졌다.
“제가 당진문화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건 생활문화예술제때문이지요. 지역의 음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선 무

엇보다 무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진문화재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음악 뿐 아니라 문화 동호회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문화재단이 했다고 생각해요.”
신성철 씨는 “생활문화예술제는 기획부터 홍보, 진행, 평가까지 전반에 걸쳐 예술제에 참가하는 동호회원들이 추진단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스스로 진행 전반에 참여하면서 평가와 반성도 할 수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제를 통해 서로 몰랐거나 알면서도 교류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



르의 문화 동호인들이 친분을 쌓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지역 내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역시 당진문화재단이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밴드 리턴즈의 보컬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볼 때도 당진문화재단의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신성철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근 지역 중에는 서산시의 문화 활동이 가장 활발했는데 이제는 당진이 독보적”이라며 “특히 숨어 있는 문화동아리, 음악 동호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눈에 뵈는 만큼 늘어났다”고 말했다.
“우선 공연이 정말 저렴하잖아요. 아주 큰 매력이지요(웃음) 또 당진에서 보기 어려웠던 공연들을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전에 보기 어려웠던 국악이나 연극, 뮤지컬, 대향가수의 콘서트 등 공연 장르도 다양해졌죠. 전 개인적으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

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당진의 이런 변화는 수혜자인 시민들에게도 공연기획자나 재단 직원들에게도 의미가 있죠.”
신성철 씨는 밴드 활동을 하면서 당진에 “젊은 인구가 많고, 교대근무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는 지역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잠재적 인구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 씨가 앞으로 당진문화재단에 바라는 점은 딱 하나란다.
“당진시민들이 더 많은 공연을, 더 좋은 공연을 즐기려면 우선 당진문화재단 직원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되나요?(웃음) 사람은 기계가 아니지만 비슷한 면도 많잖아요. 방전 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요. 결국 문화를 만드는 일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이야기가 있는 당진 마을 여행 2 - 송악읍 고대리 안섬포구

옛이야기를 기억하는 바다와 어민들이 있는 마을

불과 40여년 전만해도 당진에는 지금보다더 많은 바닷가 마을이 있었다. 1976년 착공해 1979년 완공된 삽교호방조제를 비롯해, 석문방조제, 대호방조제 등이 들어서면서 많은 바닷가 마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땅이 들어섰다. 새로운 땅을 중심으로 바닷가에 줄지어 선 대규모 산업단지들로 인해 자취를 감춘 마을도 적지 않다. 흐르던 물길이 막히고 없던 땅이 생겨나는 등 지형이 변하자 자연히 그곳에서 생계를 꾸리던 주민들의 삶도 변했다. 많은 이들이 어업을 접고 대를 이어 살던 고향을 떠났다.

그럼에도 지역의 절반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터라, 당진 여행에 있어 바다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특히 겨울 바다는 매서운 바닷바람이란 단점에도 불구하고 찾게 되는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이지 않은가. 이야기가 있는 당진 마을 여행 두 번째 행선지로 송악읍 고대리 안섬포구를 소개한다. 안섬포구는 당진의 많은 어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역사와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귀한 포구다. 이곳에서는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문화, 안섬풍어당굿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어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올 겨울, 소박하지만 정감 가는 바닷가 마을 안섬포구로 가벼운 산책을 추천한다.



4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 안섬풍어당굿의 무대 빨간등대, 푸른바다, 예쁜 벽화를 만나는 겨울바다여행

언덕 위에 오르면 펼쳐지는 안섬포구 풍경의 진수

당진 대부분의 바닷가에서는 높이 솟은 굴뚝과 공장지대가 먼저 시야에 들어

와 온전한 바다 풍경을 즐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데 송악읍 고대리에 자리한 안섬포구는 현대제철과 동부제철이란 대규모 공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안에 들어서면 거짓말처럼 공

장의 모습은 찾기 어려워진다. 산이 포구를 감싸 안은 지형 덕이다. 고스란히 바다와 갯벌, 포구와 어민들의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안섬의 풍경을 한 눈에 즐기고 싶다면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쉽게 찾을 만한 곳이 마을에서 포구로 내려가는 언덕 위, 팔각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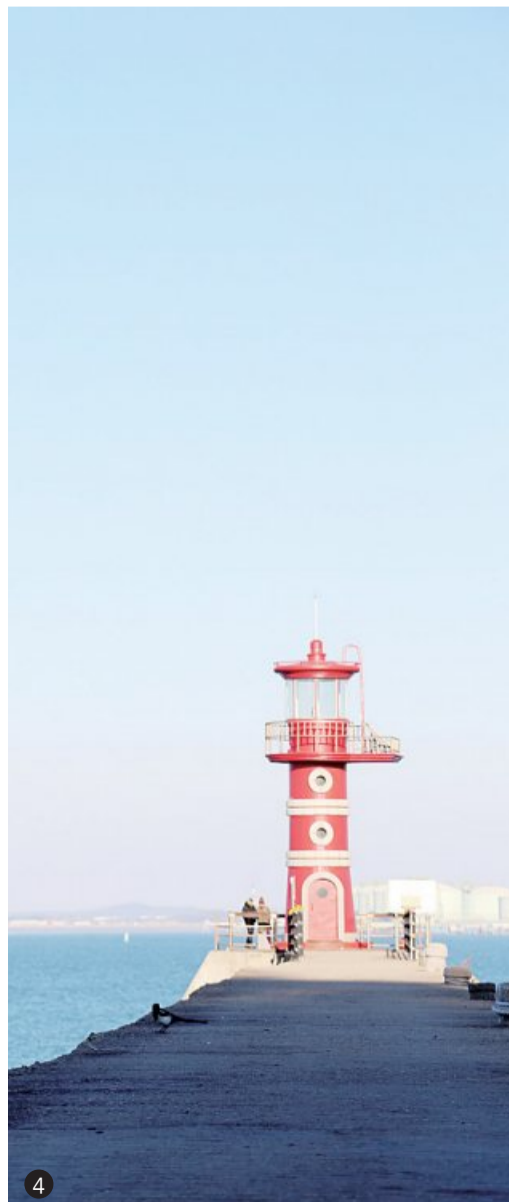
장승이 선 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길을 따라 바닷가로 향하는 길목, 마치 벽처럼

높이 솟은 언덕길을 만나게 된다. 언덕 위에 안섬풍어당굿 전수회관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팔각정은 이곳 전수회관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쉼터인 팔각정에 오르면 언덕 아래 숨은 보물, 안섬포구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가슴이 탁 트인다는 말이 안섬맞춤이다. 발 아래 아가자기 모여 앉은 집들과 너른 마당처럼 펼쳐진 갯벌,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산세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그림이다.



① ⑥ 전수회관 위 팔각정에 오르면 안섬포구가 한 눈에 들어온다.
② 안섬포구의 포장마차들
③ ④ 빨간등대와 어선들
⑤ 언덕을 넘어서면 생각지 못한 바다풍경이 펼쳐진다.
⑦ 안섬풍어당굿의 당집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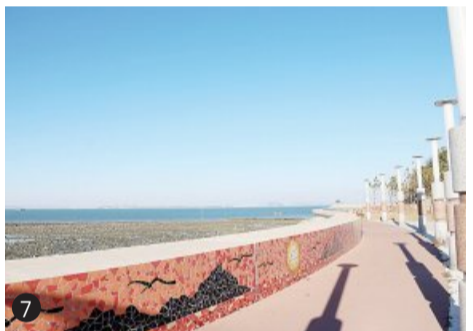
4



5



6



7

①, ②, ④, ⑦ 안섬포구의 겨울풍경
③ 안섬풍어당굿당집입구를 지키는 장승
⑤, ⑥ 안섬풍어당굿 전시관

**빨간 등대와 겨울 바다,
그리고 뜨끈한 갈국수 한 그릇**

정자에서 내려와 겨울 바다로 향한다. 언덕을 내려오면 금세 바닷가다. 바닷가 초입에는 최근 안섬지구 친수연안 조성사업으로 공원이 들어섰다. 깔끔하게 단장한 너른 광장에는 안섬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크와 산책로, 물고기를 본 뜬 유니크한 디자인의 화장실, 운동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아래는 여전히 동네 아낙들이 겨울이면 굴을 따고, 여름이면 바지락을 캐는 갯벌이다. 갯벌로 내려가 볼 수 있는 계단도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왼편으로 안섬포구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 등대가 눈에 들어온다.

등대를 향해 바닷가를 걷다보면 줄지어 선 포장마차를 마주하게 된다. 안섬포구의 유명한 바지락 갈국수를 맛볼 수 있는 맛집들이다. 안섬에 사는 어민들이 운영하는 덕에 포장마차에서는 주인네가 직접 잡은 싱싱한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포장마차 안에서 바다를 즐기며 해

산물요리를 맛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특히 겨울 바닷바람에 쫄쫄 얼어버린 온 몸을 사르르 녹여 주는 바지락 갈국수는 꼭 잊지 말고 맛보자.

속을 든든히 채운 뒤, 옷깃을 아무 지게 여미고 등대로 향한다. 바다를 가로질러 난 방파제를 따라 등대로 향하는 길에서 겨울 바다의 진수를 느낀다.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바람이 겨울 특유의 쨍한 상쾌함을 선사한다. 눈이라도 내린 날이면, 빨간 등대에 내려앉은 흰 눈과 푸른 바다 풍경이 더욱 눈부시다. 등대에서 바라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안섬 마을이 정겹다.

수백년 전통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

등대가 있는 방파제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포구에 정박해 있는 고깃배들이다. 안섬포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깃배들에 얽혀 있다. 매년 정월 초하루를 지난 첫 진일 펼쳐지는 안섬풍어당굿이 그것이다. 정확한 역사적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400년에서 600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한다. 안섬풍어당굿은 연평도로 조기잡이를 나가던 어민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안섬포구의 오래된 풍습이다. 어민의 수가 줄고 바다의 모습이 변한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풍어제는 엄격한 유교식 제사와 달리 육지와 바다에서 무당이 춤과 노래를 곁들인 굿을 하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화목과 협동을 다지는 마을축제 형태로 진행된다. 변화무쌍한 바다가 일터인 어민들에게 베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벌이일 것이다. 오래 전부터 농민들이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듯, 어민들도 바다에 나가기 전 무사안녕과 풍어를 용왕신에게 빌며 마음을 다진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기잡이가 성했던 옛 시절에는 풍어제가 일년중 가장 큰 마을 행사였으나 최근에는 어업의 쇠퇴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허나 안섬 주민들은 여전히 오래된 마을의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안섬풍어당굿 예능보유자인 지윤기 선생을 필두로 매년 정월이면 당집

입구에 장승이 세워지고 마을 곳곳에서 굿판이 벌어진다. 특히 바다 위에서 액운을 태우는 발심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관이다.

안섬풍어당굿의 흔적은 포구 오른쪽 당산에 자리한 당집과 안섬풍어당굿 전수회관 2층 전시관에서 엿볼 수 있다. 전시관에는 안섬풍어당굿 장면을 재현해 놓은 조형물과 주민들이 복원한 조기잡이 어선을 비롯해 실제 당굿 때 쓰이는 제기, 제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안섬풍어당굿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관람 문의를 안섬풍어당굿 전수회로 하면 된다. 안섬풍어당굿은 충청남도 문화제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 곳곳, 아기가자기한 벽화

마을 초입에서, 혹은 전수회관 앞 팔각정에 올랐을 때 이미 보았겠지만 안섬포구 곳곳에서 어촌 마을의 특징을 잘 담아낸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지난 여름 현대제철 임직원 봉사단이 재능기부한 벽화다. 안섬 마을의 야트막한 집들 곳곳에 그려진 벽

화가 마을 여행에 색다른 재미를 준다. 바닷가 마을에 어울리게 갈매기며, 물고기들을 그린 벽화 앞에서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들게 된다. 마을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벽화를 구경하며 어촌의 속살도 넉넉히 느껴본다.

시간에 따라 자연도, 사람도 변하기 마련이다. 오랜 세월 파도를 맞은 바위가 부서지고, 바다를 지켰던 젊은 어부는 옛이야기를 간직한 채 늙어간다. 문명의 변화가 가져온 개발은 그보다 속도가 더 빨라, 하루아침에 산 하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막히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당진의 바닷가 마을이 오래 전 아름다웠던 자연 풍경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오랜 이야기를 기억하려 애쓰며 전통을 미신이라 견어 차버리지 않고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어 안섬포구가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글, 사진 우현선



안섬포구마을 곳곳에 조성된 아기가자기한 벽화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인기가.

당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 한국서각협회 당진시지부

목판에서기는예술혼 '서각'을아시나요

“서각은 글씨, 조각, 채색이 어우러진 ‘종합예술’”

‘서예하면 으레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연상하지만 최초의 서예는 칼로 새기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옛 중국의 갑골문이 최초의 그것이다. 이후 시대에 따라 청동이나 돌, 금속에 글씨를 새기는 일이 성하였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서각 중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현판과 전각 정도다. 돌이켜 보니 학창시절 미술시간, 목판에 조각칼로 그림과 글씨를 세기고 찍어보는 수업이 있었다. 오랜 역사에 비해 생소한 ‘서각’이 최근 당진에서 자주 눈에 띈다. 한국서각협회 당진시지부의 활발한 활동 덕이다.

2015년 당진문화예술학교에 ‘서각’ 강좌가 개설되면서 수강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것이 당진서각회로 이어졌다. 올해 초에는 한국서각협회에도 가입해 당진시지부로 거듭났다.

동아리 활동 첫해인 2015년 당진문화재단 별별동지사업에 참여하였고, 이후 동아리주간사업

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시분야 ‘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당진폴뱅이장터, 당진시 주최 문화행사 등 지역 내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에게 ‘서각’을 알리고 있다. 제14회 충남서각예술대전에 참여해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서각’을 종합예술작품이라 일컫는다. 문구를 작성하고 배경 그림을 스케치하는 작품구상부터 글씨와 그림을 세기고 색을 입히는 전 과정에 문예창작, 조각, 회화 등이 접목된다는 의미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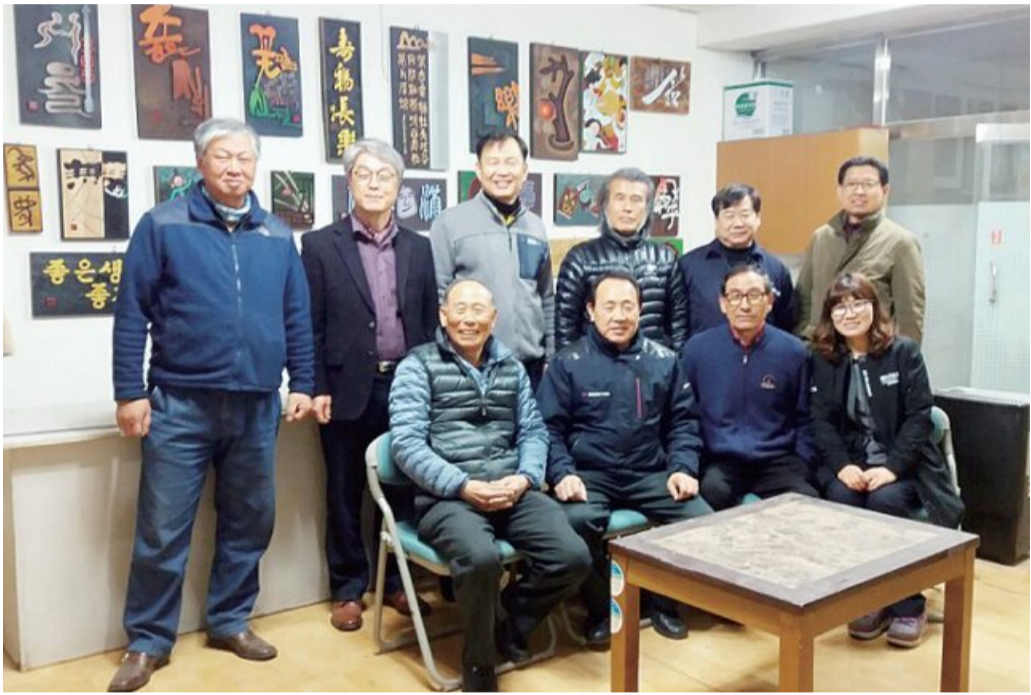
“서각은 붓으로 글씨를 써서 칼로 새기는 작업이에요. 붓끝이 칼끝으로 이어져 작품이 완성되는 셈이죠. 글씨도 써야 하고 조각도 해야 하고 색칠도 해야 하니 그야말로 종합예술 아닌가요. 작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많은 시간을 공들여야 하고요.”

하현완 지부장은 “종합예술이라 해도 할 수 있는 서각 작품을 완성해 놓고 보면 그렇게 신기하고 뿌듯할 수가 없다”며 “작품을 나무에 새기기 때문에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고 유품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원병 회원은 “젊었을 땐 취미생활도 없이 먹고 사느라 바빴는데 나이가 들어 시작한 ‘서각’ 덕분에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전시회라도 하면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받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노후가 외롭다거나 무료할 틈없이 즐겁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유정근 회원은 “예술이란 게 삶의 행복과 풍요를 주는 것인데 서각은 특히 나이 들어서도 장소구분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서각을 하는 동안 나만의 시간을 통해 풀기도 한다”고 말했다.

당진서각회는 현재 16명의 회원이



원이 활동 중인데 직업만큼 연령대도 다양하다. 35세 청년부터 89세 어르신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랫동안 서각을 했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초보자도 서각을 배우며 활동할 수 있다. 서각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유적지의 현판과 같은 전통서각과 캘리그래피, 그림 등을 접목시켜 채색

까지 이뤄지는 현대서각으로 나뉘는데 당진서각회에서는 두 분야 모두 다루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회원들이 모두 함께 작업실에 모여 작품 활동을 한다. 하지만 회원이라면 정기모임 시간 외에도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작업실을 사용할 수 있다.

하현완 지부장은 “초보자도 서

각의 기초부터 배우며 활동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서각협회당진시지부 회원: 하현완(지부장), 차원병, 남상문, 이강우, 이종만, 장재호, 황봉숙, 유정근, 인양진, 박미희, 최창윤, 최유길, 이재필, 한대륙, 구본숙, 최병식

■가입문의: 010-4329-3216(하현완)

당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 국악실내악단 희희낙락

“당진 곳곳에 국악이 울려 퍼지길”

당진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국악실내악단 찾아가는 국악 콘서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공연 활동



요즘 아이들은 가야금보다 피아노가 더 친숙하다. 국악보다 흑인음악인 힙합이 더 친숙하듯이. 젊은 세대만 그런 것도, 음악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의식주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교과서 같은 말’로 치부되곤 한다.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들

아갈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국악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하는 건데요. 가야금으로 영화 OST를 연주하는 걸 들으시면 놀라시기도 해요. 국악에 대한 편견은 어찌면

자주 접하지 못한 낯설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국악실내악단 희희낙락 단원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당진에서 공연되는 서양음악의 공연 횟수에 비하면 국악 공연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당진을 주무대로 하는 희희낙락의 활동은 지역 공연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희희낙락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전공자 8명으로 구성된 국악실내악단이다.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등과 같은 국악기 중심의 프로 연주단체다. 1년에 5회 정도 당진을 주무대로 찾아가는 국악콘서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같은 기획연주회 등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1월4일에는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길거리 음악회도 열었다. 가야금과 대금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이 가을 오후와 어우러져 당진시민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틀 후에는 상록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국악콘서트도 열렸다. 희희낙락의 올해 마지막 공연이었다.

박혜정 단장은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에서 보던 대금이나 피리, 가야금 등을 실제로 보고 연주 소리를 들으면 참 즐거워 한다”며 “정기공연 때도 일반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드라마 삽입곡 등을 편곡해 연주하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 말했다.

희희낙락 단원들은 연주회 현장에서 만나는 관객들의 호응에 비해 국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쉽다.

우연희 단원은 “피자를 먹어봐야 피자 맛을 아는 것처럼 국악도 학교 수업시간에서부터 접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특히 국악전공자들이 당진에 살면서 프로 연주단을 꾸리고 있으니 당진시민들에게 만큼은 국악을 많이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은진 단원은 “국악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란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담고 있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며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희낙락 단원 중 당진에 거주하는 4명의 단원은 지역 내 학교에 예술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 수업을 진행하며 개인 레슨도 한다.

한편 당진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국악수업을 맡아 진행하기도 했고, 기획연주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진문화재단의 별별동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매주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연습실 사용을 지원받고 있다.

박혜정 단장은 “연습 공간만 지원된다면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국악 강좌 봉사도 하고 싶다”며 “우리 당진 지역에서 만큼은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희희낙락 단원: △가야금-박혜정, 우연희 △대금/소금-박은진 △해금-이수빈 △타악-김혜림, 김건보 △피리-조진학 △신디사이저-조희현

■공연 및 강좌문의: 010-7162-6001(박혜정 단장)

문화유산으로 보는 당진 - 2

안심풍어당굿놀이

〈당진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당진문화는 어디에서 시작돼 어떤 과정을 거친 걸까요? (당진문화재단 소식지)가 당진문화의 뿌리를 찾아나섭니다. 새로 쓰는 당진문화유산사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말 당진문화재단이 발행한 『한권으로 읽는 당진문화유산』(필진: 김추윤, 신양웅, 윤성익, 이인화 사진: 최영근)이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발췌·정리해 당진 문화의 정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요약 과정에서 원문의 내용을 읽기 쉽게 일부 임의 수정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안심 풍어당굿놀이'입니다.

- 제1회 매항비(埋香碑) - 제2회 안심풍어당굿놀이(충남무형문화재 35호)



풍어를 기원하는 안심 풍어당 굿놀이

지금 안심에서는 〈안심 풍어당 굿놀이〉 준비가 한창이다. 매년 음력 정월에 당제를 지내는데 준비는 전년도 동짓달 그믐달(11월 말)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시작은 당주 집에서 갖는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당제일을 정하는데 통상 정월 초진일로 한다. 당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총경비는 동민 전체에 분담하여 거출한다. 이때부터 신성한 당맛이를 위해 온 동민이 정성을 다하여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킨다.

첫째 선달 그믐달부터 당집과 당주 집 문 앞에는 새끼줄에 한지를 끼워 금줄을 매달아 놓고 황도흙을 놓아 악귀나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둘째, 선달 그믐달부터 당제일까지는 동민 전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당의 주신이 용왕인데 용은 즉 뱀이요, 뱀은 돼지와 상극이라 돼지고기를 일절 금한다. 물론 제사음식으로 쓰지 않는다. 셋째, 제관은 아무리 추운 날씨가 되더라도 바닷물에 들어가 목욕재계한다.

〈안심당굿놀이〉는 외부에는 '안심 풍어제'로 알려져 있다. 배를 가진 선주

들을 중심으로 마을 전주민이 참여해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와 당굿을 지냄과 동시에 민속놀이경연대회에 참여하면서 당굿놀이로 부르게 되었다.

풍어제는 당굿을 중심으로 뱃고사, 거리굿, 샘굿, 장승굿을 행하는데 진일(辰日)에 마을 뒷산에 있는 당집에 올라 당주를 중심으로 마을의 무사태평과 안녕을 비는 제를 지내고 무당이 여섯마당의 굿을 한다. 신은 장군신, 용왕, 서낭, 3신을 모시는데 주신은 물과 바다를 주관하는 용왕신이다.

안심당굿놀이의 당고사

당제 행사는 당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각 선주들은 당주대에 꽂아두었던 배기를 큰 배 순서대로 들고 제당으로 올라가는데, 이 때 무당, 화랑이들도 풍악을 울리며 따라간다. 일 년 열두 달 마을 전체의 무사태평과 무병장수, 그리고 운수대통의 축원을 하며 "얇은 자리는 복자리, 선 자리는 벼슬자리 되게 하고 짧은 명을 길게 긴 명은 더 길게 해 달라"는 축원을 한다. 개인별로 무병장수와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소지

를 올린다. 소지가 잘 타올라야 소원대로 된다하여 정성을 다한다.

밤이 깊어 가면서 열두거리 굿이 진행되는 화랑이들도 같이 풍악을 울리며 굿판에 흥취를 돋운다. 이때 선주들은 돈을 쓰게 되며, 동민들도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새벽녘까지 행사는 이어진다. 날이 밝아 동녘 하늘에 새아침의 햇살이 솟을 때쯤 되면 굿도 끝나게 되고 다음 행사 준비에 바쁘다. 둘째 날은 뱃고사와 거리굿, 샘굿, 장승굿 등으로 이어진다. 뱃고사는 당제를 지냈던 제물(제수용품)을 선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선주들은 뱃기와 함께 각각 무사고를 비는 뱃고사를 지내게 된다.

점심때가 되면 뱃고사도 끝나게 되고 샘굿과 거리굿, 장승제가 시작된다. 인간생활에서 식수를 공급해 주는 우물은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냇물 연못이 없는 작은 섬마을에서는 일체의 민물공급은 오직 우물뿐이기에 대동샘 굿은 더욱 중요시 되었다.

샘굿이 끝나면 거리제를 지낸다. 섬의 중앙사거리에서 제를 지낸 다음 장승제를 지내는데 장승은 목장승이며 남장승 몸통에는 '동방청제대장군'이

라 쓰여 있고, 여장승 몸통에는 '동방청제대장군부인'이라 쓰여 있다. 장승은 마을 어귀에 모셔 놓고 통행인을 보호하고 악질악귀를 몰아내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안심의 고기잡이

안심은 송악면 최북단인 송악면 한진리와 송산면 동곡리 사이에 동서로 길게 자리 잡은 작은 섬마을이었다. 행정구역으로는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구로 30여 년 전만 해도 주민은 섬의 동북쪽에 위치한 큰말과 강변 말에서 집촌을 이루었고 서쪽인 노란이 쪽에는 몇 호에 불과해 전체 호수는 70여호였다. 주민은 모두 어업이 주업이었고 약간의 밭농사를 겸한 영세민들이었다.

안심에서 가장 어업이 번성했던 시절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로 남으로 전라남도 칠산 바다에서, 북으로는 연평도 및 울진반도 연안까지 출어하였다. 정월 중순이 되면 출어하기 시작하는데 날씨가 추우므로 수심이 깊은 남쪽 칠산 바다로 나가 조기를 잡았다. 겨울에는 조기떼들이 남쪽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다 해동이 되면 난류의 북상과 더불어 조기떼들도 북상하며 자란다. 연평도 근해까지 북상하게 되면 산란기가 되어 산란장소를 찾는데 연평도는 먹이도 많을 뿐더러 수심도 얕아 산란장소로 적당하여 모든 조기떼들이 모인다.

안심에서 많이 잡는 어종은 준치, 갈치, 조기, 뱀장어, 황새기, 새우, 숭어, 게, 굴 등 20여 종이 되나 이 중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준치였다. 준치는 5월초가 제철인데 초고추장에 준치회는 천하 일미요, 썩갠 굴을 곁들인 준치탕은 당 중에 탕이라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아 갈증을 면하게 하였다.

연평도 당제

고기 잡는 현장인 연평도에 가서 옛날에는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당시 연평도 잡이는 이 마을의 선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터였다. 일단 배가 연평으로 나가면 연평도 마을 앞에 정착했는

데 '당맛이'라고 하여 연평도 당에서 고사를 드렸다. 당맛이는 각 개별 어선별로 하게 되는데 배를 당말에 대놓고 연평도의 단골을 찾아가서 고사를 주문했다.

선장은 물론이고 선원들 전부가 목욕재계를 하여 금기를 행하게 된다. 뱃동서는 모두 12명 정도 된다. 당시 제물로는 뽕, 흰떡(시루째 울림), 삼색실과 북어를 올렸으며 절대로 돼지고기는 쓰지 않았다. 고기는 소고기산적을 썼다. 배에서 잡은 민어 같은 생선들로 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연평도에서 종이를 사서 길지를 올렸다.

제를 행하는 방식은 모두 절을 하고 나면 분당골이 징을 쳐주면서 굿을 올렸다. 그리고 선원들 모두가 소지를 올렸다. 육당은 뱃뺨지에 선반을 달아서 만들었으며 임경업장군신상을 화상으로 그려 붙였다. 임장군 당에서 제를 지내면 그날 저녁에는 임장군 당이 있는 곳을 향해 정박하고 하룻밤을 잤다.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됐다. 잠을 자면서 임장군이 현몽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준다는 소박한 믿음에서다. 길몽을 꾸게 해달라는 당부다. 대게 제를 올리는 시점은 물이 강한 사리 때는 하지 않고 물의 힘이 약하여 고기가 덜 잡히는 조금때 이루어졌기에 어업에는 지장이 없었다.

지금?

현대제철과 각종 기업들이 유입되면서 지금은 뱃일과 어업이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 연안 안강망을 주로 하는데 30여분 거리인 아산만 앞바다에서 근해어업을 한다. 배는 약 30여척으로 배 규모는 동력배로 3톤부터 5톤 내외의 소형선박이다.

전라도와 연평도 먼 바다로 나가는 예전의 뱃일은 사라졌지만 풍어를 기원하는 안심풍어당굿놀이는 무형문화재(충남무형문화재 35호)로 남아 당진 생활 문화의 맥을 전하고 있다.

〈발췌·요약〉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역지원팀

올겨울 문화재단 사업

이정음, 박종영, 황영애 시인 출판기념회 개최

이시대의문학인, 올해의문학인 출판기념회



이정음



박종영



황영애

16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로비

당진문화재단이 2017 이 시대의 문학인으로 이정음 시인을, 올해의 문학인으로 박종영, 황영애 시인을 선정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올해 이 시대의 문학인으로 선정된 이정음 시인은 당진시 합덕에서 태어나 군복무 시절부터 시를 짓고 습작하다 고향에서 뜻 있는 문우들과 <버그네 문학>을 창단, 시 창작 활동을 해왔다. 이정음 시인은 1991년 월간 농민문학과 동양문학을 통해 문단에 등단했으며 1992년 첫 시집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을 발간했다. 1998년에는 연호시문학을 창간하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시인은 현재 당진문인협회, 당진시인협회 회원이며 합덕에서 안경원을 경영하고 있다.

이 시대의 문학인 출판사업은 지역문

학발전이 기여한 원로문학인의 작품을 보존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문학 작품 발간 및 작품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당진문인협회 및 6개 문학단체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문학인을 선정하며 선정 문인의 책 발간을 위한 경비 및 출판기념회를 지원한다.

2017 당진 올해의문학인

올해의 문학인으로 선정된 박종영 시인은 2007년 대한문학세계 신인상, 2010 대한문학세계 최우수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 시인은 정주 출신으로 현재 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 감사를 맡고 있으며 당진에서 환경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황영애 시인은 1998년 의정부 회룡문

화제 시부분에서 차하를 수상하고 2005년 11월 월간 시사문단사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그는 이번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을 통해 첫 개인 시집을 발간한다.

황 시인은 (사)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 부회장 겸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현재 당진시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을 대상으로 공모, 심의를 통과한 작가의 출판물 발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학인과의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문학인 창작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문학단체 간 담화를 통한 지역 문학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12월16일(토) 오전 10시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미산II> 당진 설화 음악극으로 재탄생

당진문예의전당 직접제작



당진문화재단과 당진문예의전당이 당진을 대표하는 아미산을 배경으로 한 고품격 음악극을 직접 제작해 선보였다. 온가족이 함께 보는 당진설화 <아미산II>는 이지원 문화사업팀장이 총괄프로듀서를 맡아 지역의 예술인들을 섭외하여 스템 및 출연진을 구성하였으며 재단 직원들이 대거 제작에 참여했다.

아미산과 오공산(지금의 몽산)에 살고 있는 용과 지네가 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펼쳐지는 설화를 다룬 음악극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당진의 최고봉 아미산과 몽산에 얽혀 내려오는 '용과 지네에 관한 전설'을 모티브로 새롭게 기획된 이야기다.

공연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5회에 걸쳐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 공연은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되었다.

// 올겨울, 이 공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환상의하모니,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당진에 온다!

2017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기획공연
클래식, 영화 OST, 팝까지 다양한 장르 선보일 예정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하는 연말 공연계의 강자,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당진을 찾는다. 당진문화재단은 12월 17일, 2017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기획공연으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공연을 준비했다.

100년 전통, 세계에서 사랑받는 합창단

파리나무십자가 합창단은 1906년 프랑스 사보이 근처 타미에 대수도원에서 피정 중 이던 두 신자가 종교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람들을 기다리는 성가대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합창단을 꿈꾸며 시작했다. 1907년 1월10일 첫 리허설을 시작해 그해 10월, 파리의 생제르망 로제루 외에서 가진 첫 공연이 큰 성과를 이루게 되고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을 프랑스 전역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단원들은 8~15세의 100여명 소년들로 최

소 2년간 음악 수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오디션을 거쳐 멤버가 되면 보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4성부로 제 역할을 맡는다.

파리나무십자가 합창단은 끌로드 드뷔시, 모리스 라벨, 자크 이베르 등의 유럽 낭만파 작곡가들의 곡, 다이아스 미요, 프란시스 플랑크, 아르튀르 오네거 등 현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민요 및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샹송, 팝, 크로스오버 등 레퍼토리가 점점 다채로워지면서 일반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31년 북미 진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열광적인 환영과 호평을 받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도시를 비롯한 100여개 나라에서 정기적인 월드투어로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총 23곡, 다양한 레퍼토리에정

파리나무십자가 합창단은 당진에서 2부에 걸쳐 총 23곡을 노래한다. 찬란하게 빛나는 어린시절의 행복을 노래하는 곡, 브루노 쿠레의 '너의 길을 보아라'를 시작으로 영화 '문라이즈 킹덤'의 OST로 삽입되었던 벤자민 브리튼의 '올드 아브라함',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표곡 '그대는 듣고 있는가(Do You Hear The People Sing)', 보이 소프라노의 매력을 한껏 살리는 모차르트 '자장가(Berceuse de Mozart)'를 비롯한 클래식 곡, 성가 '아베 마리아(Ave Maria)', 각국의 민요들, 샹송 메들리 '파리 파남(Paris Panam)'과 마이클 잭슨의 팝 '힐 더 월드(Heal The World)'까지 클래식과 팝을 중횡무진 오갈 예정이다.

공연은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티켓은 좌석 등급에 따라 3만원~1만원으로 나뉜다.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가능하다. 공연 문의 전화는 041-350-2911~4으로 하면 된다.



당진문화재단뉴스(9~11월)



청소년 위한 뮤지컬 <4번 출구> 공연
당진문화재단, 당진시보건소 공동 주관
생명존중, 자살예방 위한 청소년 뮤지컬

지난 9월20일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뮤지컬 <4번 출구>가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공연됐다. 경기도립극단이 선보인 공연은 '당진시보건소 제6회 생명사랑 문화제'의 일환인 '청소년을 위한 공연'으로 당진문화재단과 당진시보건소가 공동 주관해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뮤지컬 <4번 출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국내 대표 국립극단의 청소년 자살예방 창작뮤지컬이다.



공연장에서 공연됐다. 24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었던 이번 공연으로 당진문예의전당이 모처럼 꼬마 관객들로 북적였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립극악단이 기획한 <곰돌이의 여행>은 '모모'로 유명한 독일의 세계적인 동화작가 미하엘 엔데의 '곰돌이 위셔블의 여행'을 모티브로 삼아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함께 우리 악기와 민요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당진문화재단은 국비보조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사업예산 절감과 더불어 당진시민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공모해 이번 공연을 선보이게 됐다.



그랜드콘서트 <오페라 판타지아>
러시아아쿠티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당진시와 아쿠츠크시 문화교류원년의 해 기념

러시아 아쿠티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내한공연 <오페라 판타지아>가 지난 10월20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노태철 지휘자가 이끄는 러시아 아쿠티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발레극장 단원, 당진시립합창단이 출연했다. 협연자로는 러시아 정상의 성악가 소프라노 페오도시야 쇠후르디나, 메조소프라노에 아이탈리나 아다모바, 테너에 그리고리 페트루, 바리톤에 유리바이셰프 씨와 함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승희 씨가 초청돼 무대에 올랐다. 한편 당진시립합창단과 아쿠티아 국립발레단이 함께하는 플라보 공연도 펼쳐졌다. 당진시와 아쿠츠크시 간의 문화교류원년의 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특별공연으로 마련되었다.



월드비보이 챔피언이 당진에 뒀다!
EXTREME CREW 'SHOW' 'Hey! Mr.BIG'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017 월드 비보이 챔피언의 주인공 EXTREME CREW(익스트림 크루)가 지난 11월11일 당진을 찾았다.

EXTREME CREW 'SHOW' 「Hey! Mr.BIG」이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장에서 펼쳐졌다. 비보이 그룹 익스트림 크루와 힙합그룹 일루션이 출연한 이번 공연은 2017 문예회관과 함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진행됐다. 당진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비보이, 힙합 장르의 공연으로 지역주민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대중성과 예술성이 검증된 난버벌 형식의 작품으로 보다 넓은 대상의 관객이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

꼬마 관객들 '복적' 우리가락에 '들씩'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이 지난 10월27일과 28일 당진문예의전당 대



시민의 날 특별공연 <전인권 밴드>
'그대여,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야외공연장에서 공연 생중계와 이벤트도 진행

시민의 날 특별공연 <전인권 밴드 - 그대여,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가 지난 9월29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됐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주제로 시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한 이번 공연은 국민대통합의 의미로 추진되었던 5.18 기념식 초청가수 전인권 밴드가 무대에 올라 100여분간 '돌고 돌고 돌고' '꿈결같은 세상' 등의 히트곡과 울드 팝 등을 노래했다.

한편 같은 시각 야외공연장에서는 연계행사로 '시민의 날 가족소풍'이란 주제로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대형스크린을 통해 공연이 생중계됐으며 가족단위 관객들을 위한 특별이벤트가 진행됐다. 사전공연으로 알리스웬원단과 레라티웬원단이 무대에 올랐으며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석고마임, 매직풍선쇼, 별문아트 등의 이벤트가 함께 마련됐다.



2017 당진전국연극제 개최
7일간, 전국 6개 극단 출연

2017 당진전국연극제가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개최됐다. 당진문화재단/당진문예의전당과 (사)한국연극협회 당진지부, 극단 당진이 공동주최한 이번 연극제에는 당진을 비롯한 5개 지역 극단이 참여해 수준 높은 연극 무대를 선보였다.

10월30일 개막식이 끝난 뒤 극단 당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로 첫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후 청주의 청년극장이 '삼총사', 대구 엑터스토리극단이 '개장수', 광주 극단 터가 '높은 코미디언 이야기', 울산씨어터예술단이 '높은 부부 이야기' 서울 극단 가변의 리틀말걸과 강력발기단이 연극제 무대에 올랐다. 연극제 마지막날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연극제와 함께 폐막식이 진행됐다.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2017 당진문화재단 문학사업 선정작

출판기념회

2017. 12. 16. SAT 11:0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로비

당진문예의전당

당진예당 챔버소사이어티 창단 연주회

DANGJIN C&A CENTER CHAMBER MUSIC SOCIETY INAUGURAL CONCERT

W. A. Mozart | F. Schubert | J. Offenbach | P. Sarasate | A. Piazzolla | A. Vivaldi

윤수영	이광호	김선미	김병완	이승희	손준만	유지녕
VIOLIN	VIOLIN	VIOLIN	VIOLA	CELLO	D.BASS	PIANO

2017. 12. 17 SUN 17:0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특설무대

| 주최·주관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공연문의 | (041)350-2911~4 | 예매 | www.dangjinart.kr | 관람료 | 전석 1,000원

// 당진문화재단 직원소개



이명남이사장
첫 민간이사장으로 지난 9월 취임해 재단을 이끌고 있다.



문옥배 사무처장
우리재단 출범과 함께 일을 시작해 전체 팀을 총괄하고 있다.



[경영지원팀] 문화재단의 재정운영 및 업무지원은 물론 시설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한황우 팀장(가운데)과 정동욱, 김경미, 오수용, 박정택 팀원(왼쪽부터)이 소속돼 있다.



[문화사업팀] 문화재단의 전시, 공연 등 문화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당진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다. 이지원 팀장(왼쪽 세번째)과 왼쪽부터 김현중, 원상오, 박효경, 김태희, 나슬기 팀원이 일하고 있다.



[예술교육팀] 시민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지역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날이 많다. 김광진 팀장(왼쪽 두번째)과 송시원, 인치수, 신지애, 김은조 팀원(왼쪽부터)이 일하고 있다.



[무대기술팀] 공연은 무대기술팀의 음향·조명·무대운영의 3박자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이다. 홍진웅 팀장(왼쪽 세번째) 외에 김수영, 한기영, 임시현(앞줄 왼쪽부터), 이양훈, 최재욱, 이동원(뒷줄 왼쪽부터) 팀원이 소속돼 있다.

당진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 한해 당진문화재단은 새로운 변곡점에 섰습니다.

당진시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재단출범 4년 여 만에 민간이사장 체제를 맞았습니다. 시민여러분께 다양한 공연, 전시로 좀 더 수준 높은 문화를 선보이고자 애썼습니다.

예술문화교육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호응과 박수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에 힘입어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임직원 모두 고개 숙여 가슴 깊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문화로 행복한 당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진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